

광주시, 불법 의료 행위 및 약사법 위반 등 27곳 적발

무면허 영업·유사의료행위 등 불법 미용업소 20곳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 등 판매 목적 진열 약국 7곳

광주광역시 민생사법경찰과(특별 사법경찰)는 지난 5월30일부터 한 달간 관내 미용업소의 영업신고 여부 및 불법의료행위 등과 약국의 의약품 등에 대한 관리·판매·사용 실태를 확인하고 불법 미용업소와 약사법위반 약국 27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단속 결과, 영업 신고도 하지 않고 미용업소를 운영하거나 무면허 영업행위, 의료인만이 할 수 있는 유사의료행위(반영구 화장) 등을 한 불법 미용업소 20곳과 사용기한이 경과된 조제용 의약품 또는 한약제

등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한 약국 7곳이 각각 공중위생관리법, 의료법,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적발됐다. 위반행위별로는 ▲무신고 및 무면허 미용업 영업 9건 ▲의료기기 및 전문의약품 등을 사용한 유사의료행위(반영구화장 등) 11건 ▲사

용기한 경과 의약품 또는 한약제 조제·판매 목적 진열 7건 등이다. 주요 위반 행위로 A 미용업소는 관할 구청에 미용업 신고 없이 무면허 미용행위를 운영하다 적발됐고, B 업소는 의료기기인 니들, 전동니들과 의약품인 마취크림, 안연고 등을 이용해 유사의료행위(반영구화장)를 하다 적발됐다. C 약국은 사용기한이 300일 지난 전문의약품을 조제실 내 진열대에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고, D한약사 약국은 사용기한이 1년 이상 지난 청호, 토사자, 산초 등 조제용 한약재를 판매 목적으로 진열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업소는 해당 자치구에 통보해 행정처분토록 하고, 대표자에 대해서는 시 민생사법경찰과에서 직접 조사해 사법조치할 계획이다. 김현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코로나 유행 이후 일상회복에 접어들

면서 시민들의 미용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지속됨에 따라 무신고·무면허 영업, 유사의료행위가 증가하고 있고, 의약품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이번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며 “시민 건강을 위협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민생침해 사범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앞으로 도 시민 건강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유빈 기자

기아, ‘봉고 III EV 냉동탑차’ 출시

기아가 ‘봉고 III EV 냉동탑차’를 출시한다고 4일 밝혔다. 봉고 III EV 냉동탑차는 지난 2020년 1월 출시한 봉고 III EV 초장축 킹캡 기반의 특장 모델로,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급증한 시장 수요와 고객의 목소리 및 친환경 정부 정책을 반영하면서 기아의 목적 기반 모빌리티(Purpose Built Vehicle, PBV)의 방향성을 담아 개발된 차량이다.

반아 사용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 개발 단계에 이를 적극 반영함으로써 상품성을 향상시켰다. 봉고 III EV 냉동탑차는 135kW 모터와 58.8kWh 배터리를 탑재해 완충 시 177km를 주행할 수 있다. (냉동기 미가동상태 기준) 냉동기 효율을 극대화해 냉동기를 가동하면서도 150km 이상의 주행이 가능하도록 개발했으며, 전기차의 장점을 살려 5분 이상 공회전이 제한되는 디젤차와 달리 정차 시에도 냉동기 지속 가동이 가능해 우수한 운용성을 확보했다.

봉고 III EV 냉동탑차는 기존 봉고 III EV의 편의사양을 그대로 계승한 것이 특징이다. 봉고 III EV 전용 사양인 ▲전동식 파워스티어링 ▲패들시프트 ▲버튼시동 스마트키 ▲전자식 파킹브레이크 등이 기본으로 장착됐다. 또한 ▲운전석 통풍·열선시트 ▲폴오도 에어컨 ▲오토라이트 컨트롤 헤드램프 ▲하이패스 자동결제 시스템 등 고객 선호 사양 기본 적용으로 쾌적하고 편안한 운전을 돕는다. 동절기 충전 시간을 단축시켜주

는 배터리 히팅 시스템 역시 모든 모델에 기본 탑재해 추운 겨울철에도 충전 속도 저하를 방지한다. 아울러 전방 충돌방지 보조(FCA), 차로 이탈방지 보조(LKA), 운전자 주의 경고(DAW) 등을 전 모델 기본 사양으로 운영해 고객의 안전한 운전을 돕는다. 봉고 III EV 냉동탑차는 저상형과 표준형 2개 모델로 출시되며, 각 모델의 가격은 ▲저상형 5천984만 원 ▲표준형 5천995만 원이다. 차량 구매 시 정부 소형화물 전기차 보조금 1천840만 원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지자체별 상이, 서울시 기준 788만원), 취득세 140만 원 한도 감면 등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공영주차장 주차비와 고속도로 통행료도 할인 받을 수 있어 경제성이

높다. 기아 관계자는 “봉고 III EV 냉동탑차는 개인과 소상공인, 대형 업체의 니즈를 두루 반영한 상품성과 우수한 가격 경쟁력을 갖춘 최적의 친환경 배송 맞춤형 차량”이라며 “봉고 III EV 냉동탑차로 친환경 유통 생태계를 확장하고 국내 냉장·냉동 물류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문수 기자

전남, 폭염피해 최소화 온힘 전남도가 폭염이 지난해보다 빨리 찾아오고 강도도 거센 만큼 이에 따른 인명재산피해를 막기 위해 재난 대응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도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나주, 담양, 곡성, 구례, 화순에 첫 폭염특보가 발효된 이후 4일 현재까지 12일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는 7월 1일 첫 폭염특보가 발표됐으며 이어진 기간은 2일에 불과했다. 4일 기준 전남에는 담양, 나주, 화순, 3개 군에 폭염경보가, 나머지 19개 시군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 곳은 하루 최고 체감온도가 35℃를 넘겼다. 질병관리청이 온열질환감시체계를 가동한 지난 5월 20일부터 지금까지 전남에선 21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다. 환자들은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했으며, 현재까지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전남도는 22개 시군과 함께 지난 5월 20일부터 폭염 특별전담팀을 꾸려 상황근무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취약계층에 대응물품을 지급하고, 폭염저감시설을 확충하면서, 실수차 및 양산 대여 서비스를 하는 등 도민이 일상에서 피해 없이 폭염을 극복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서용운 기자



기아가 ‘봉고 III EV 냉동탑차’를 출시한다. 봉고 III EV 냉동탑차는 지난 2020년 1월 출시한 봉고 III EV 초장축 킹캡 기반의 특장 모델로,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급증한 시장 수요와 고객의 목소리 및 친환경 정부 정책을 반영하면서 기아의 목적 기반 모빌리티의 방향성을 담아 개발된 차량이다. /기아 제공

함평청지

함평産 농산물!

맑고 깨끗한 자연에서 생산...
소비자의 건강까지 생각합니다.

미나 방호박
Sweet Pumpkin

함평 사과
Premium

함평 포도
Premium

연자리 남우
Red Sesame Balls

연자리 남우
White Sesame Balls